

## 고대의 기억: 도카마치의 고고학

시나노 강 유역은 현재의 도카마치시를 포함한 지역으로, 약 1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발굴조사를 통해 일본의 조몬 시대(기원전 14,000년~400년)와 관련된 토기와 석기가 발견되어 이곳이 사람들의 거주지였음이 증명되었으며, 이는 또한 눈이 많은 지역에 살았던 가장 오래 전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조몬 시대는 토기의 발명으로 정의되는데, 대부분 손으로 모양을 잡아 직접 불에 구운 토기였습니다. 사실 조몬(줄무늬)이라는 명칭은 이 토기 측면에 마줄을 둘러 새긴 모양을 의미합니다. 활 및 화살과 함께 토기의 발명은 인간의 식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조몬인은 더욱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에 올릴 수 있는 그릇은 날것으로는 독이 있거나 맛이 없는 야생 식물을 삶아서 먹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조몬인의 식생활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그들이 남긴 토기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산성토양에서는 뼈와 같은 생물학적 유물이 금방 분해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탄화된 고대 식사의 잔해가 조리 용기에 남아 있어, 과거에 냄비에서 무엇을 조리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식생활의 개선은 조몬인의 인구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약 5,500년 전부터 4,500년 전 사이, 즉 조몬 중기에는 시나노 강 유역의 인구가 2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화염형 토기'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 무렵입니다.

화염형 토기는 니가타현 특유의 토기로, 종교적·의례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부 화염형 토기에서는 일상적 용도로 사용한 조리도구임을 보여주는 그을음이 남아 있는 것도 발견되었지만, 그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일상적인 조리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염형 토기의 대부분은 실용적이지 않은 높은 측면과 돌출된 장식이 있는 넓은 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몇 가지 모티프(나선형이나 S자 무늬 등)가 자주 등장합니다. 심지어 당시 일본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닭을 연상시키는 형상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화염형 토기의 구체적인 용도나 문양의 의미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도카마치 지역에서 발굴된 다채로운 유물들은 변형했던 고대 문화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도카마치시 박물관에는 토우, 석기, 장식품, 가장 오래된 화염형 토기 등 이 지역에서 오늘날까지 발굴된 1000 점에 가까운 유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사야마 유적에서 발견된 심발형 토기 57 점의 출토품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